

‘녹동항 밤바다’ 수놓을 드론쇼 막바지 준비 ‘착착’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마다 한 차례씩 녹동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드론쇼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 1천500대 드론·불꽃쇼 내달 13일 첫 개막 매주 토요일 밤 상설공연 1회 진행 등 볼거리 다채

고흥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녹동항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할 드론쇼 공연과 막바지 준비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녹동항 드론쇼는 지난해부터 전남 최초로 매주 토요일

일 밤마다 다양한 주제와 연출로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흥군의 정체성을 가진 고품질 콘텐츠를 선보인 군 대표 야간관광 특화 상설공연 상품이다.

드론쇼 공연은 혁신적인 군집비행 기

술력과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신(新)드론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이 맡아 진행하며, 올해는 드론쇼와 연계한 다양한 관람객 참여·체험 이벤트를 추진한다.

상설 공연은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마다 단 한 차례씩 녹동항 일원에서 드론 700대 규모의 공연이 펼쳐진다. 하절기(4-9월)에는 오후 9시, 동절기(10-11월)에는 오후 8시에 열린다.

특별 공연은 개막식, 추석, 고흥유자축

제, 연말연시, 내년 설 연휴에 드론 1천대 이상 규모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드론쇼의 첫 시작은 오는 4월13일 오후 8시, 흥겨운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1천500대 규모의 드론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 상용 드론 비행시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최정상급 공연 콘텐츠를 선보여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올해는 드론쇼가 펼쳐지는 녹동항 일원에 포차거리, 푸드트럭,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소록대교 야간경관 조명

보장 등 다양한 먹거리·즐거거리를 제공해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젊음이 함께하는 고흥 관광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하는 드론쇼는 고흥의 밤하늘을 무대로, 지난해보다 환상적인 드라이브쇼 공연으로 다채로운 고흥의 이야기를 소개할 것”이라며 “관광·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권 최초로 매주 토요일 처음 선보인 녹동항 드론쇼는 불과 23만 공연에 18만여명의 관람객으로 150여원의 자·간접적 지역 상권 경제효과를 거뒀다. 드론쇼 공연을 통해 녹동항과 녹동 바다정원은 고흥 여행길 핫플레이스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고흥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관광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흥=최복환 기자



여주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 1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여수’ 실현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시즌2’를 개막했다. <여주시 제공>

여수 ‘탄소중립 선도도시’ 박차

민·관·산·학·연 중심 ‘정책포럼 시즌2’ 개막 CCUS 클러스터 구축 용역 국비 5억 확보

여수시가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시즌2’ 출범식을 개최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발협)는 지난 1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여수’ 실현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시즌2’를 개막했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전남테크노파크는 ‘여수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 ‘CCUS 클러스터 용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시는 ‘탄소중립시대 여수시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지난해 여수시, 공발협, GS칼텍스 주관으로 구성된 여수 최초의 민·관·산·학·연 협의체는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시즌1’에서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클러스터 구축사업 검토 용역비 국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여수산단을 관통하는 여천 선로의 재활용을 통한 여수산단 Utility Highway(유틸리티 하이웨이) 구축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공발협 단원직 회장을 맡고 있는 정

기명 여수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 실현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이라며 “여수시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발협은 여수시와 GS칼텍스를 비롯한 지역 내 유관 기관들과 올해 초부터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 시즌2’ 운영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포럼을 통해 관내 민·관·산·학·연이 공동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해 여수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 용역 진행 협조, 여수산단 Utility Highway 구축사업 용역 진행,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힘을 보태며, 지역 내 미래 지향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정책 제언도 함께 이뤄진다. <여수=김진선 기자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郡, 하반기 고흥사랑 지정기부 사업 본격 시행

곡성군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고흥사랑 지정기부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고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인 올해에도 향우 등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곡성군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사업에 많은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곡성재광향우 이선창 아성제약 전무이사는 지난 12일 곡성군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공감하고 500만원을 기부했

다. 이선창 전무이사는 “곡성 아이들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기부문화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군수는 “곡성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부금을 통해 소아과 방문 진료, 진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지역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올 하반기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소아과 전문가가 주 2회 곡성을 방문해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백현진 기자

‘신도심’ 기대...순천 풍덕지구, 택지개발 부지조성 본격화

오늘 착공식...2028년 준공 예정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15일 풍덕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조합 관계자와 도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린다.

오는 2028년 3월 준공 예정인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택지 지구에 걸맞도록 생활편의시설이 늘어 날 전망이어서 신도심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정원과 연계된 주거시설 확

장을 위해 순천시와 협의 중이며 관광·휴양시설, 친환경주거시설 등을 유치해 관광·레저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만들고, 공공시설 가운데 95%를 공원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용지포함 43.5% 등 전원적·친환경적 생태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갖춘 명품 신도심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풍덕지구 조합 관계자는 “순천시 최우수 택지개발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택지 지구에 걸맞도록 생활편의시설이 늘어 날 전망이어서 신도심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지능률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 조합

장은 “지난 20여년동안 정채된 사업이 시행 계약과 창립 총회를 거쳐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드디어 착공식을 갖게 됐다”며 “순천시 정책에 함께하고 시공사와 원만한 협업함으로써 공익을 우선하고 화합을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감사하고 순천 최고의 명품 부지환경 조성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천465억원을 투입해 총 55만㎡ 부지에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21년 6월 전남도 실시계획인가, 같은해 7월 순천시로부터 한지계획인가를 받아 일괄적으로 추진 중이다. <순천=양홍렬 기자



담양군의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장명영 군의원 ‘의정봉사대상’

담양군의회는 14일 “지난 13일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제20회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담양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월례회는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과 22개 전남시·군의회 의장, 이병노 담양군수, 전남도 의원 및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전남의 각종 현

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지역 의정발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의정봉사대상을 장명영 담양군의원 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부지능률 실현과 살기 좋은 담양군을 위해 노력한 이병노 군수는 감사패를 받았다.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은 “전남 현안을 공론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 증대재해 메뉴얼 배포 매달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장흥군은 14일 “2024년 증대재해 대비·대응 메뉴얼”을 제작해 군 산하 기관·부서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에서 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증대재해 발생 사례 등을 제시했다.

각 사업장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군은 앞으로 메뉴얼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장흥군은 매달 현업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다.

장흥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사례 중심 증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노홍렬 기자

화순군,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 추진

재배면적 감축 목표 168ha...타작물 재배시 인센티브

화순군은 14일 “쌀 적정 생산 대책사업을 통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논공·가루쌀 등 논 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해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순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168ha이다. 추진 중인 대책 사업은 ▲전락 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이다.

전락 작물 직불제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면적은 0.1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단가는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는 200만원, 옥수수 100만원, 조시료는 400만원이다.

아울러 동계작물로 밀·조시료를 재배하고 하계 작물로 가루쌀·두류를 재배하면 100만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